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본론, 12차, 전달 불가능한 속성, 3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전달 불가능한 속성, 3부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해심, 열린 마음
, 기꺼이 하는 정신,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언약과 맹세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입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그의 전달 불가능한 속성, 즉 우리에게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그의 독특한 속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거나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전지전능하거나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신이 지식과 이해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은 본질적으로 신의 무한함과 그의 지식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신의 이해가 무한하기 때문에 신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5. 할렐 시편은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각 책의 끝에는 찬송가가 있지만, 마지막 다섯, 여섯 편의 시편은
찬송가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시편의 다섯 번째 책을 마무리하는 확장된
찬송가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라, 12절.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네 문의 빔장을 튼튼히 하시고,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를 축복하시며, 네 경계 안에 평화를 만드시느니라.

그는 당신을 가장 좋은 밀로 채우시고, 땅에 명령을 내리시며, 그의 말씀은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즐겁고 찬양의 노래는 합당하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그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이름을 주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시편 147:5, 권능이 풍부하시다. 그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는 악한 자를 땅에 던지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해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한다, 이사야 40장 28절.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야곱아, 이사야 40장 27절,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권리는 내 하나님께 무시당한다, 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기진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으며, 나는 ESV를 선호합니다. 그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욥기 28:24). 그의 완전한 지식(욥기 30:7, 16)에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과 그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편 33:13~15. 훌륭한 시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자식을 보신다. 그가 왕좌에 앉아 있는 곳에서 그는 땅의 모든 주민들을 내려다본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는 분이다.

왕은 그의 큰 군대에 의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사는 그의 큰 힘에 의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군마는 구원에 대한 거짓된 희망이며, 그 큰 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이미지. 저는 신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우리가 조사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에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신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지전능하다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 첫 번째와 마지막을 포함합니다. 그는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4:6과 7. 회계사, 시편 139:16. 그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 이사야 29:15과 16.

성경에 따르면, 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신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면서 우상에 맞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이사야 46:9, 10.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나는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신이고,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오래 전부터 선포하며,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것은 종종 하나님이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행하시는 것을 알거나 행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는 맥락에서 설정됩니다. 이사야 42장.

나는 주님이다, 8절. 이사야 42 :8. 나는 주님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조각한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전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노라.

그들이 솟아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이사야 44:6, 7.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만군의 주이신 그의 구속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그가 그것을 전파하게 하라.

내가 옛 백성을 임명하였으므로 그가 선포하고 내 앞에 두게 하라. 그들이 무엇이 올 것인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선포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 증인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오, 그들이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법을 알았다면. 나 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반석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들의 증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신을 만들거나 이익이 없는 우상을 주조하는가?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장인들은 인간에 불과하도다. 그들 모두 모이게 하라. 그들 모두 서게 하라.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야훼로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섭리로 실현하실 수 있으며, 그 맥락 에서 그는 우상과 그것을 만든 자와 숭배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철공은 절단 도구를 가지고 석탄으로 그것을 가공한다. 그는 망치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작업하고, 강한 팔로 그것을 가공한다. 그는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진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은 희미하다. 목수는 선을 긋는다. 그는 연필로 표시한다.

그는 그것을 대패로 깎고 컴퍼스로 표시한다. 그는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깎아 사람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집에 거주하게 한다. 그는 삼나무를 베어내거나 사이프러스 나무나 참나무를 골라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라게 한다.

그는 삼나무를 심고 다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연료가 됩니다. 그는 그것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는 불을 피우고 빵을 굽는다. 또한 그는 신을 만들어 경배한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절반은 불에 태워버리고, 절반은 고기를 먹고, 구워서 만족해한다.

또한 그는 몸을 덥히고, 아하, 따뜻해. 불을 봤어. 그리고 나머지는 신,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는 그것에 기도하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감아 그들이 볼 수 없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아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식도 분별력도 없어서, 절반은 내가 불에 태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그 숯불에 빵을 구웠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내가 그 나머지를 가증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나무토막 앞에 엎드릴 것인가? 그는 재를 먹는다. 미혹된 마음이 그를 미혹하였으므로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반대로,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구름과 같이 네 허물을, 안개와 같이 네 죄를 지워 버렸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이 우상의 무지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영적 빈곤과 대조되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독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이며, 어떤 피조물도 그에게서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에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히브리서 4:16). 문맥상,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쓰신 공언하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불신이나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대교는 한때 하나님의 유일한 참 종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짓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잠언 15:3). 그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인용하자면, 주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의 의도를 이해하십니다(역대기상 28:9). 이것은 죄인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만적이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마음, 예레미야 17:9, 10.

마음은 모든 것보다 간사하고 악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나, 주님은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는 그것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는 악한 인간에게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열려 있고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13.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시각, 행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있으므로 그의 백성에게는 변화를 주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4. 고백의 위대한 시편, 왜냐하면 나는 내 범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시편 제목은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말합니다.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밋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을 때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밋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당신과 당신께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시야와 감각에 악한 일을 했으며 이제 당신이 당신의 말에 의롭고 당신의 판단에 흠이 없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을 아시는 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돌보고, 그의 백성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7~10은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로 고생했고, 그런 다음 우리는 "주여,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보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압제도 보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성경은 다니엘 2:22에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에게만 속한 숨겨진 것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고 신명기 29:29에서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복음에서 사도들을 통해 알려진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계시와 별개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사의 경이로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구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그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고 있으며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로마서 11:33과 34.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입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한한 지식으로 묘사됩니다. 인용하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골로새서 2:3).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첫 제자들도 때때로 배우는 데 느리지만, 베드로(요한복음 21:17)와 그의 동료들(요한복음 16:29과 30)은 그리스도의 전지함을 고백합니다.

그 구절들은 우리의 허끝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29과 30. 제자들은 예수께서 비유나 어두운 말씀 없이 곧은 말로 말씀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요한복음 16:29에서 아, 이제 당신은 비유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도 당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주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 요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약간 질투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를 제자리에 앉히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어려운 회개로 이끌어 세 번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세 번의 부인에 상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복음 21:15,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그는 세 번째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동사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가 세 번째로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압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삶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7. 그는 우리 머리카락과 기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묻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6:8. 우리의 신은 전능하고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그는 또한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간과 관련하여 무한합니다.

실제로, 신은 시간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시간 자체에는 시작이 있지만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머지 우주와 함께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자발적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사는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신에게 이 속성을 돌립니다. 한 시편의 저자인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의 영원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구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제목.

주님, 당신은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시며, “돌아오라, 인간의 자녀들아, 당신 보시기에 천 년 동안이나 지나간 어제와 같거나 밤의 한 경시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홍수처럼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들은 꿈과 같고, 아침에 새로워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고 새로워집니다.

저녁에는 시들어지고 말라죽으니, 우리가 당신의 분노에 의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두셨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당신의 임재의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당신의 진노 아래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한숨처럼 우리의 세월을 끝냅니다.

우리의 삶의 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70년이고, 심지어 힘으로 80년입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수고와 고난일 뿐입니다. 그것은 곧 사라지고 우리는 날아갑니다.

누가 당신의 분노의 힘과 당신의 두려움에 따른 당신의 분노를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영원함과 우리의 날의 짧음에 비추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날을 세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언제까지 돌아오시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침에 우리를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신 날 수만큼, 우리가 악을 본 해 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확립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디모데전서 1:17에서 찬양으로 터져나옵니다. 이제 영원하고 불멸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인 왕께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토록 드리나이다.

아멘. 영원한 왕께. 계시록은 인용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록 1:8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금 계시고,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관련된 이미지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포함되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 44:6, 7에서 읽은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이고, 나 뒤에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영원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군림하시며 시간 밖에 서 계신다고 가르친다.

그는 시간에 갇히지 않고, 시간을 통제합니다.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8, 당신 눈에는 천 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얽매인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창조물과 관련하여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경험하십니다.

창세기 1:1 창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항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그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밖에 서 있고 시간을 창조하는 신은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창조 전에 그는 창조했고, 그런 다음 그는 창조 후에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시간적 신으로 만들지 않고, 그를 시간에 갇힌 신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시간과 관계를 맺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소위 영원 과거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지만, 그것을 성취하시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적용하십니다. 구원은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영원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생 제도를 주심으로써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처음 여섯 장은 그의 백성이 죄 사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특히 레위기 16장, 속죄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것, 그는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죄 없는 삶을 살았고, 죄인들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으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구원은 역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따라서 시간 속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성육신 이전의 말씀, 즉 로고스, 빛, 또는 포스, 아들, 또는 위오스 는 시간 속에서 성육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인 (God-man) 입니다.

예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시간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시간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고, 시간 속에서 승천하고, 시간 속에서 통치하고, 시간 속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도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회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회심은, 추측하셨겠지만,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신과 공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공간에 대해 초월적이고 임박적입니다. 즉, 그는 공간을 초월하고 공간의 각 지점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가 시간적으로 초월적이고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자로서 그는 시간적으로 초월적이다. 그는 시간 밖에 서 있고 시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시간과 관련하여 임박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것은 종교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철학자들의 말을 듣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관점은 신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에서 끝없이 산다고 주장합니다. 영원한 관점은 신이 모든 시간을 통해 끝없이, 과거와 미래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자는 그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하고, 후자는 그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간략한 논의는 Ronald Nash의 *The Concept of God and Exploration of Contemporary Difficulties with the Attributes of Go*

d 73~83쪽을 참조하세요. 신성한 무시간성을 옹호하는 것은 Paul Helm의 Eternal God, A Study of God Without Time 2판을 참조하세요.

헬름은 분명히 소수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옹호하려면 존 파인버그의 No One Like Him, 375~436쪽을 참조하세요. 여기서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공간에 대한 신의 초월성과 탁월함과의 비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은 시간의 주인이시지만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지만 진정으로 시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저는 행복한 캠퍼이고, 모세가 신의 영원성을 확인하기 전에 토론을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는 시간적 존재가 아니지만, 시간과 관련하여 임박해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지켜 주시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확인하기 전에, 그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세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 우리의 삶은 덧없고 죄에 둘러싸여 있지만, 시편 90편, 3~11절,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나중에 같은 시편 90편의 12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마음에 지혜를 키우게 하소서, 12절.

청년조차도 지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진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28-30.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초가 되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보살핌을 의심할 때,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지구의 원 위에 앉아 별에 이름을 붙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는 기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심지어 젊은이들도 기진하고 지치고, 젊은이들도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백 마일을 달리고 거대한 레이스를 준비하는 울트라마라토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천 마일이나 만 마일의 레이스를 달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놀라울 정도로 훈련된 운동선수조차도 영원히 달릴 수는 없습니다.

청년이라도 기진하여 지치고, 청년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할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다.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구의 원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을 메뚜기와 같이 보시는 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양을 팔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은 자들에게 온유하여 유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초월적이고, 임박해 있습니다. 그는 전능합니다. 그는 영원하고, 그는 자신의 특성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일하게 하여, 어떤 상태나 나이에 있든 지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로마서 16:26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를 마주합니다. 그는 동시에 거하시고, 영원에 거주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불변성, 그의 불변성에 대한 연구가 놓여 있으며, 종종 전달 불가능한 속성 아래에서 간과되는 특성은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달 가능한 속성 목록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주권적이며,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며,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거나 오래 참으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2, 전달 불가능한 속성, 3부입니다.